

현안과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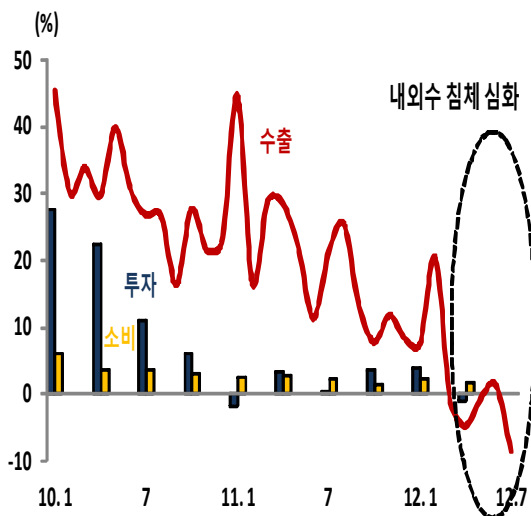
| 국내 경기 급랭과 긴급 정책 과제

I. 내외수 경기 침체 심화

○ 국내 경제는 내외수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양상을 나타냄

- 내수 부진 :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건설 및 설비 투자의 부진세도 이어짐
 -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규모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2012년 2/4분기 전년동기대비 1.2%로 3분기 연속 1%대로 하락
 -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건설 경기 침체와 공공부문 투자 위축 등으로 2012년 2/4분기 1.4% 감소,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급감 등으로 2/4분기에 -2.9%로 1/4분기 8.6% 대비 큰 폭으로 감소
- 수출 감소 :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모두 급락하여 '불황형 무역수지 흑자' 기록
 - 2012년 1~7월까지 수출은 0.8% 감소, 수입은 1.3% 증가
 - 수출 증가율이 7월 -8.8%로 마이너스 증가율로 재전환, 수입은 7월에 -5.4%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
 - 무역수지는 1~7월 기간 중 13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양상
- 성장률 급락 :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2/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.4%, 전기대비 0.4%로 하락

< 국내 내외수 침체 양상 >



자료: 한국은행, 한국무역협회.

<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>


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.

II. 향후 경기 여건과 전망

○ (대외 여건) 미국 경기 회복세 미약, 유럽 경기 부진 지속,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대외 경기 부진 양상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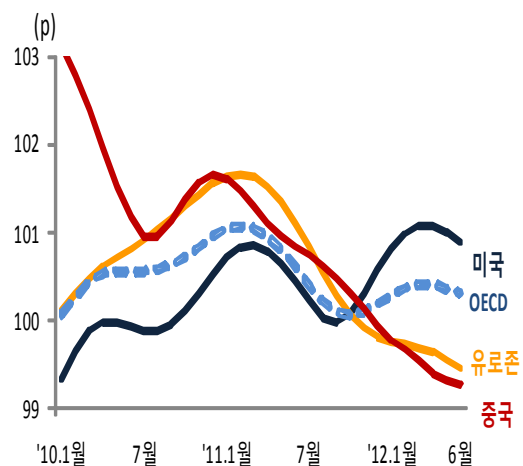
- 미국 경기 회복세 미약 : 고용시장 부진, 재정절벽(fiscal cliff) 현상의 실현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
 - 2012년 2/4분기 성장률이 1.5%로 둔화되고 실업률은 7월에 8.3%로 재상승
 - 2013~2012년 기간 중 1조 2,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축소 계획을 2012년 11월에 마련하고 12월말까지 법제화하지 못하면 강제삭감(sequestration)이 진행
- 유럽 경기 부진 지속 :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
 - 유럽 경제성장률은 2012년 1/4분기 0.0%, 2/4분기 -0.2%로 경기 부진 지속
 - 산업생산과 소매판매의 개선세가 미약하고 실업률이 6월에 11.2%로 급등
 - 스페인의 국채금리(10년물) 불안으로 유럽 재정위기 불안정성 지속
-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: 수출과 소매판매 증가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현상이 이어질 전망
 - 2012년 2/4분기 성장률이 7.6%로 2010년 4/4분기 9.8% 이후 6분기 연속 하락세가 지속
 - 수출 증가율도 1.0%로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내수가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
- OECD 주요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여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

< 주요국 실물 경제 지표 추이 >

구분		2012 (%)			
		1/4	2/4	6월	7월
미국	성장률	2.0	1.5	-	-
	산업생산	1.4	0.6	0.1	0.6
	소매판매	1.6	-0.2	-0.7	0.8
유럽	성장률	0.0	-0.2	-	-
	산업생산	-0.4	-0.3	-0.6	-
	소매판매	0.4	-0.1	0.1	-
중국	성장률	8.1	7.6	-	-
	산업생산	11.6	9.5	9.5	9.2
	소매판매	14.9	13.9	13.7	13.1

자료: BEA, 유럽은행, 중국인민은행.

< OECD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추이 >



자료 : OECD.

○ (내수 여건) 소비와 투자의 부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지수 악화. 정부 재정 여력도 소진된 상태

- 소비 여력 미약 : 가계부채 규모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,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여력은 미약
 - 2012년 2/4분기말 현재 가계신용은 922조 원으로 전기대비 약 11조원 증가하여 가계 소비 여력을 위축시킴
 - 최근에 들어 내구재 판매 증가율이 1/4분기 3.6%에서 2/4분기 2.2%로 줄어들어 소비 부진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투자 부진세 지속 : 설비투자과 건설 투자 부진세가 지속될 전망
 - 설비투자 : 설비투자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도 마이너스로 전환. 또한, 국내기계수주와 자본재 수입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어 설비투자 부진세를 예고
 - 건설투자 : 건설기성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고 건설수주 증가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건설경기 회복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
- 소비자와 기업 심리 악화 : 소비자심리지수는 2012년 5월 105에서 8월 99로 크게 하락하여 기준점 100이하에 머물고 제조업실사지수도 8월 80.1로 5월 104.7 이후 급속히 하락
- 정부 재정여력 미흡 : 2012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60.9%로 하반기 재정지출 여력이 미약한 상황

< 주요 경제 지표 추이 >

구분	2011		2012			
	3/4	4/4	1/4	2/4	6월	7월
소매판매	4.7	1.9	2.0	1.0	0.6	-
내구재	10.8	3.4	3.6	2.2	1.6	-
설비투자지수	-3.1	-4.7	9.3	-0.7	-5.6	-
설비투자압력	1.2	1.3	0.6	-1.8	-2.0	-
국내기계수주	3.4	11.5	-2.4	-18.6	-33.5	-
자본재수입	8.7	-0.2	7.0	-5.2	-10.3	-4.4
건설기성	-8.4	-0.5	-3.7	-10.9	-16.5	-
건설수주	1.5	22.4	36.6	0.8	2.6	-
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, 한국무역협회.
 주 : 설비투자압력은 '설비투자조정압력(%p)'임

< 국내 소비와 기업 심리지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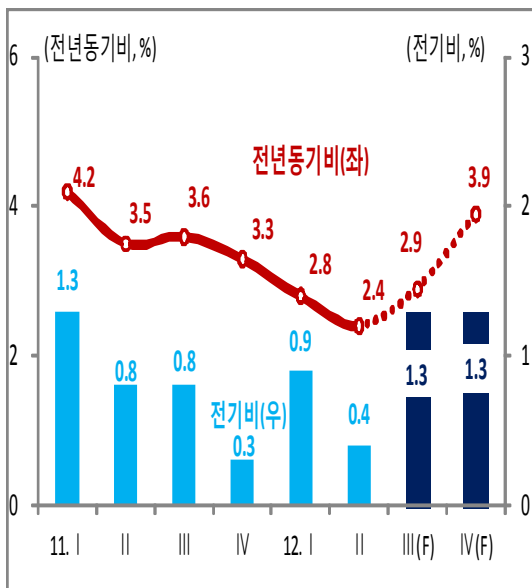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.

○ (경기 전망) 대내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국내 경제는 3%대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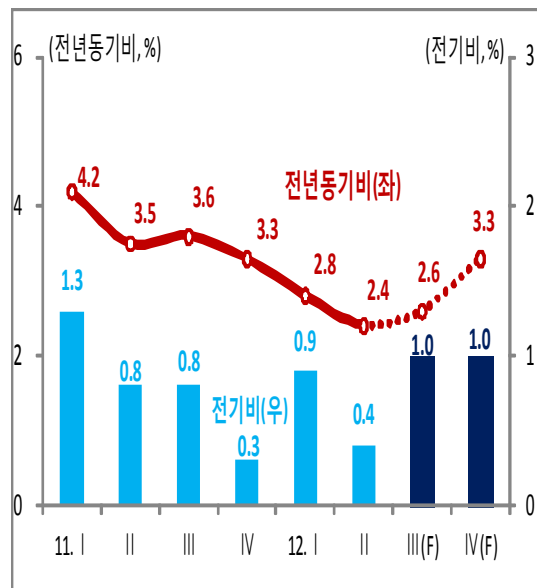
- 하반기 국내외 경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하반기 경제 성장 기조는 당초 예상보다 약해질 것으로 전망됨
- 현재 경기 상황에서 3%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최소한 각 분기마다 전기 대비 1.3% 성장을 기록해야 함
 - 하반기에 전기대비 각각 1.3% 성장은 3/4분기와 4/4분기에 전년동기대비로 2.9%, 3.9% 성장을 의미
 - 하지만 3/4분기 내외수 경기 부진을 감안하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
- 또한, 하반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전기대비 1%씩 성장한다고 해도 연간 성장률은 2.8%에 머뭇
 - 하반기에 전기대비 각각 1% 성장은 3/4분기와 4/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.6%, 3.3% 성장을 의미
- 따라서 현재와 같은 대내외 여건이 지속된다면 201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.8% 내외에 그칠 전망

< 국내 GDP 성장률 예상 경로 1 >



주 : 2012년 3/4, 4/4분기가 각각 전기비 1.3%라고 할 때, 전년동기비는 2.9%, 3.9%로 추정.

< 국내 GDP 성장률 예상 경로 2 >



주 : 2012년 3/4, 4/4분기가 각각 전기비 1.0%라고 할 때, 전년동기비는 2.6%, 3.3%로 추정.

III. 긴급 경기 활성화 대책

□ 2012년 국내 경제가 3%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긴급 경기 대책마련이 필요

○ 긴급 재정 투입 실현

- 수출 둔화,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
 -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재정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반기에 투입
 -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전제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, 기금별 추가 지출 소요 발굴,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추진
 - 불라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'추가 경정 예산 편성' 긴급 투입
 - ※ 2002년에 태풍 루사 등 재해대책 지원으로 4.1조원 추경 예산 편성, 2003년에는 태풍 매미 등 재해대책 지원으로 3.0조원, 2006년에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2.2조원 추경 예산 편성
- 한편,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계획 수립 추진
 -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SOC 투자 확대, 자연재해 발생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'상하수도 개선과 확장 사업' 등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등

○ 기업 긴급 자금 수혈

- 경기둔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
 - 기업 자금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능력 확충 방안 검토
 -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세금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을 확대 적용
 - 건설업 등 경기 침체 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 확대

○ 기업 투자 심리 개선

- 기업경영 규제 등 각종 규제 해소와 투자 애로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

- 특히 국내외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, 자유경제구역 등에 대한 문 제점 개선
- 해외 투자 기업의 국내 회귀(U턴)에 대한 수요 조사와 애로 요인 해소
- 경기 불황기 R&D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 확대

○ 서민 가계 심리 불안 해소와 물가 안정

- 가계 부채 부실 확산 차단, 부채 상환 능력 제고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 력 및 수요 증대를 유도
 - 고위험군의 다중 채무자를 위한 구조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환매조 건부로 매입할 방안 등 강구
 - 햇살론 등 서민 금융을 확대하고 저신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 알선과 직업 훈련 및 채무 상황을 패키지로 관리하는 '종합 서비스' 제공
- 태풍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가 폭등을 최대한 억제
 - 긴급 농수산물 수입 확대, 물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과일과 채소 등 식품 물가 안정 노력 강화

○ 수출 증대 노력 강화

- 한계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
 - 대외여건 악화로 고전하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수출금 융을 확대하고,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 강화
- 수출 틈새시장 개척 및 FTA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
 -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동, 남미, 인도, 아프리카 등의 신흥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각국 상황에 맞는 수출 진흥 대책을 수립
 - FTA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컨설팅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, FTA 관련 인 력 확충 및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극대화

○ 중장기 경제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자신감 회복 유도

- 중장기적인 성장 목표와 달성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자신감 회복 유도
 - '위기 극복 노력' 의지를 재천명하고 각 경제 주체들의 '경제 의욕'을 진작

경제연구본부 임희정 연구위원 외(02-2072-6218, limhj9@hri.co.kr)